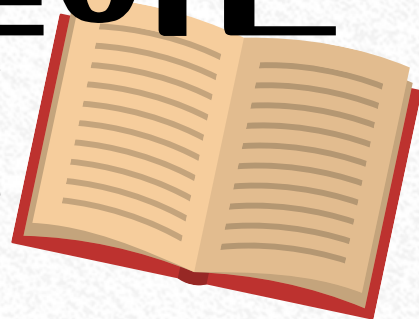




「10월 책 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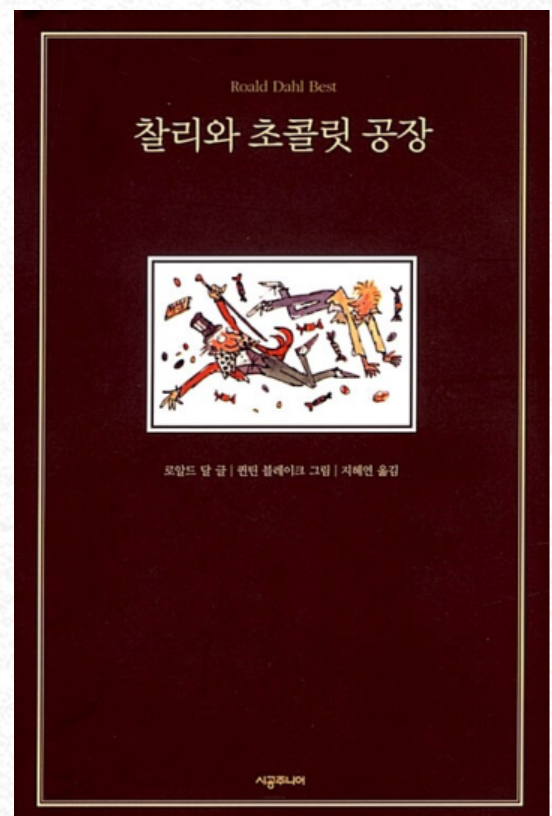
괴물들이 사는 나라



우리집 꼬마 대장님



아름다운 아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10월 책 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위대한 개츠비



작은 아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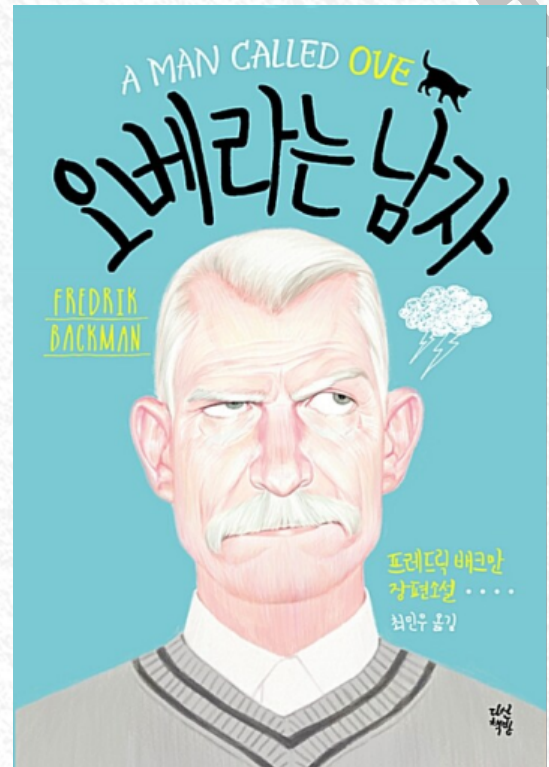
플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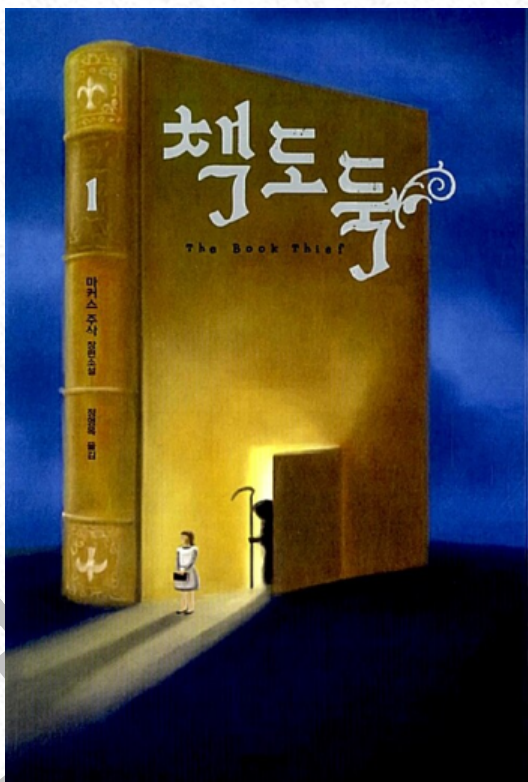
「10월 책 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둔.1



오베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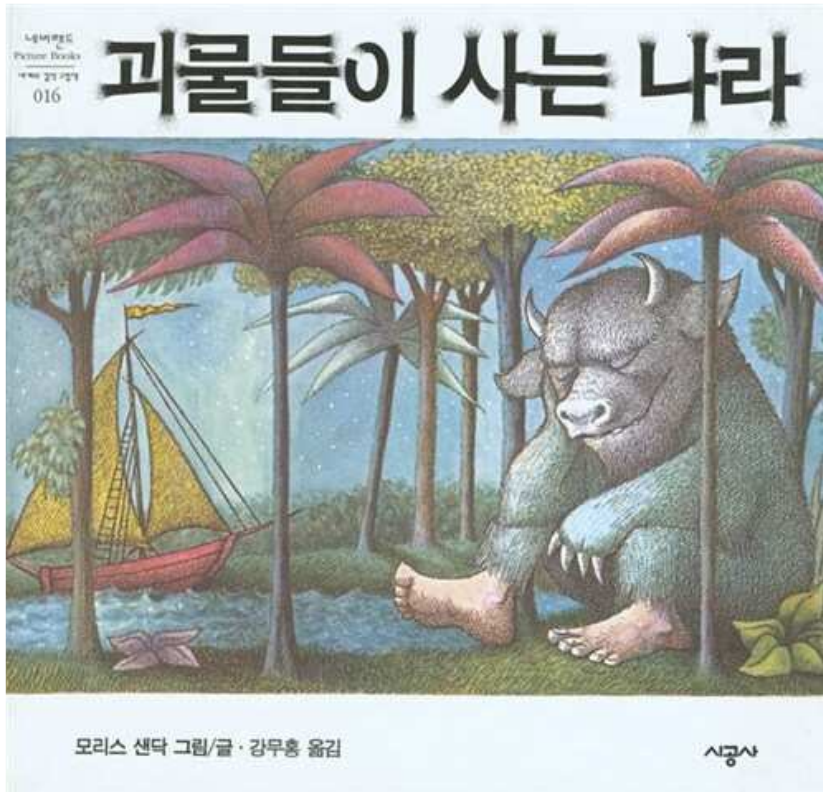


책도둑.1



마션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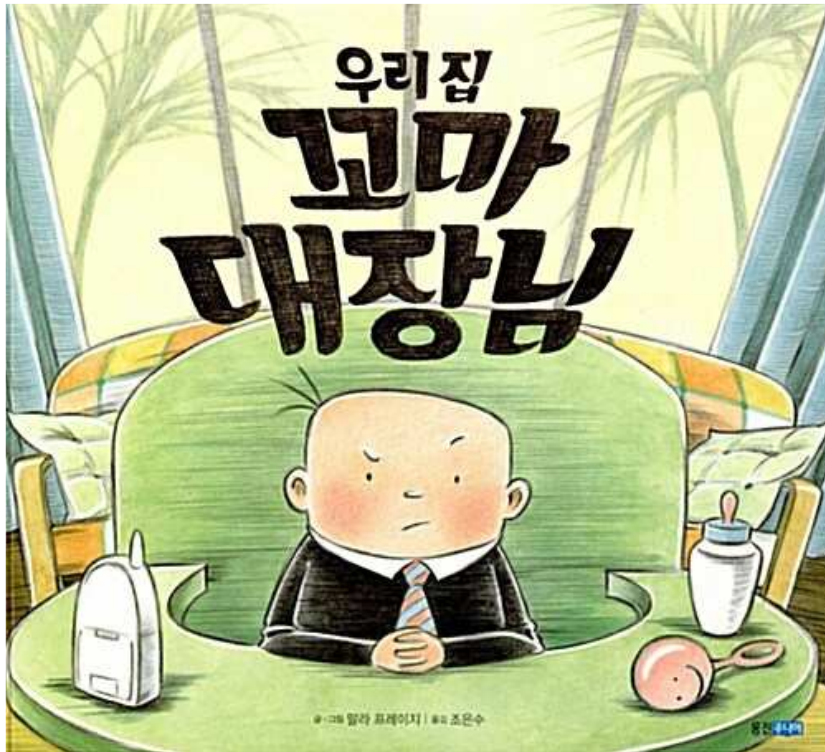
- ◎ 서명: 괴물들이 사는 나라
- ◎ 모리스 샌닥 글·그림 ; 강무홍 옮김
- ◎ 발행자: 시공주니어
- ◎ 발행년: 2017
- ◎ 청구기호: 유 843-샌221 ㄱ2

책 소개

1964년 칼데콧 수상작. 늑대 옷을 입고 장난을 치다가 엄마한테 야단맞은 꼬마가 방에 갇히는데, 방이 갑자기 숲이 되고 바다가 되고 세계 전체가 되어 꼬마를 괴물 나라로 데려간다. 꼬마는 괴물 나라의 왕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귀환하고 방 안에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엄마와의 감정적인 대립을 상상의 세계에서 풀도록 유도한다.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괴물들의 뾰족한 이빨과 발톱, 뿔 같은 무시무시한 외형과 달리 어딘가 어수룩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괴물들의 매력, 그리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소리 지르고 두 손과 발을 들어 노는 맥스와 괴물들의 놀이 현장은 유쾌함과 통쾌함을 함께 선사해 준다. 무섭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괴물, 또는 맥스의 감정을 표현한 글과 달리 천진난만하게 웃는 따뜻한 그림은 책 읽기의 재미를 더욱 크게 만든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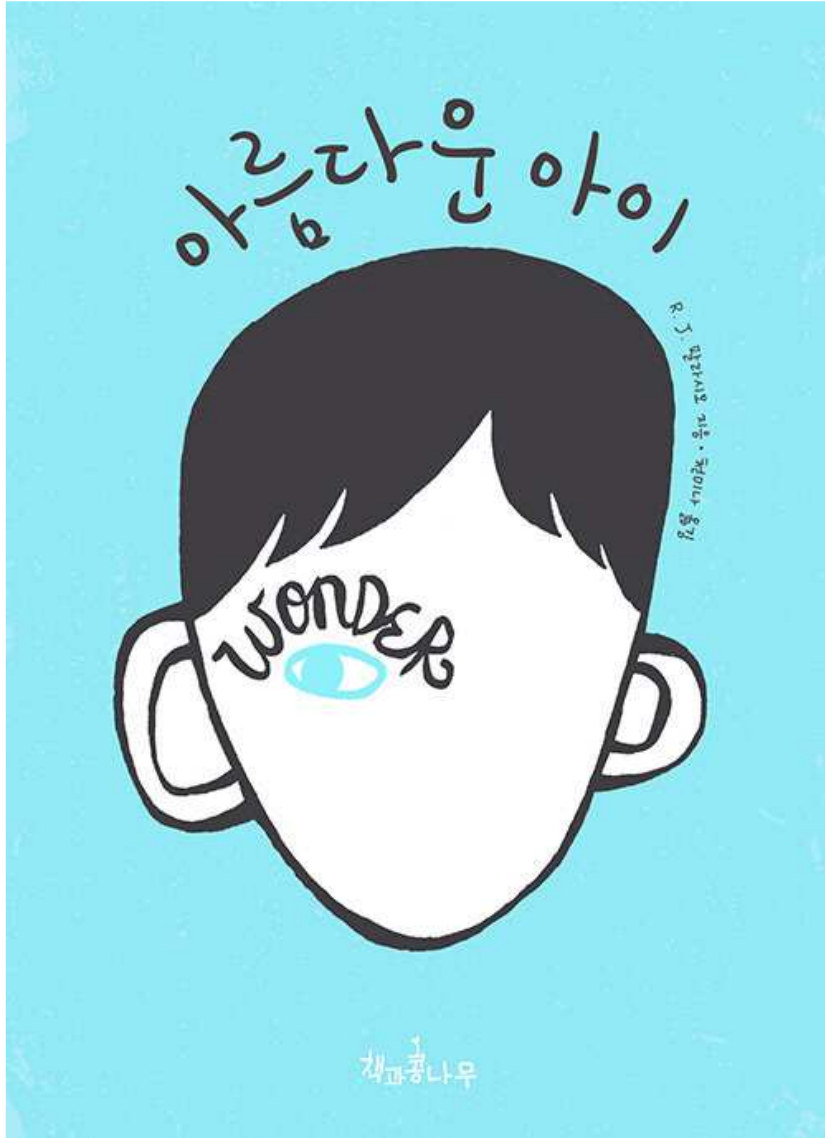
- ◎ 서명: 우리집 꼬마 대장님
- ◎ 말라 프레이지 글·그림 ; 조은수 옮김
- ◎ 발행자: 웅진주니어:웅진씽크빅
- ◎ 발행년: 2016
- ◎ 청구기호: 유 843.6-프233ㅇ

책 소개

신선하고 유쾌한 그림책 <우리 집 꼬마 대장님>은 개봉과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코믹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의 원작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굴러들어오듯이 나타난 ‘보스 베이비’ 아기 대장님과 그 앞에서 찢쩍 매는 초보 부모의 모습을 직장 상사와 직원에 빗대 표현해낸 그림책이다. 특히 주인공 ‘보스 베이비’는 앙증맞은 얼굴과는 다르게 권위적인 검정색 수트와 넥타이에 근엄한 표정을 지은 채 카리스마를 뽐내 ‘보스 베이비’만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든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책 작가에게 수여되는 칼데콧 메달을 두 번이나 수상한 말라 프레이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넘치고 사랑스러운 이 육아 그림책 <우리 집 꼬마 대장님>으로 해외 언론사들의 찬사를 얻게 된다. [보스 베이비] 영화화를 통해 작품성과 동시에 대중성 역시 검증 받은 그녀의 작품 안에는 통통 튀는 기발한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이 함께 공존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쾌하게 즐기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 [보스 베이비]와는 다른 원작 그림책 <우리 집 꼬마 대장님>이 가진 섬세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보자.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 ◎ 서명: 아름다운 아이
- ◎ R. J. 팔라시오 지음 ; 천미나 옮김
- ◎ 발행자: 책과콩나무
- ◎ 발행년: 2012
- ◎ 청구기호: 아 843-팔231ㅇ

책 소개

R. J. 팔라시오의 데뷔작 <아름다운 아이>는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 ‘어기’가 처음 만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탄탄한 구성과 개성적인 인물, 흥미로운 스토리는 작가의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출간 후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성원으로 즉각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출간 후 지금까지 118주 연속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그 후 전 세계 45개국에서 출간되어 500만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줄리아 로버츠, 제이콥 트럼블레이 주연의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 12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얼굴을 제외하곤 모든 평범한 아이. 아이는 지금껏 스물일곱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아이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스스로 헬멧 속에 자신을 가둔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제 아이는 헬멧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 한다. 과연 세상은 아이를 기꺼이 받아 줄까? 이 세상엔 과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아름다운 아이>는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열 살 소년 어거스트 폴먼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간 뒤 벌어지는 일 년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어거스트가 안면기형이라는 자신의 장애, 얼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편견, 아이들의 끈질긴 괴롭힘을 불굴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친구의 우정의 힘으로 극복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거듭나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Roald Dahl Best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글 | 키티 블레이크 그림 | 지혜연 옮김

시공주니어

책 정보

- ◎ 서명: 찰리와 초콜릿 공장
- ◎ 로알드 달 글 ; 키티 블레이크 그림 ; 지혜연 옮김
- ◎ 발행자: 시공주니어:시공사
- ◎ 발행년: 2006
- ◎ 청구기호: 아 843-달235 초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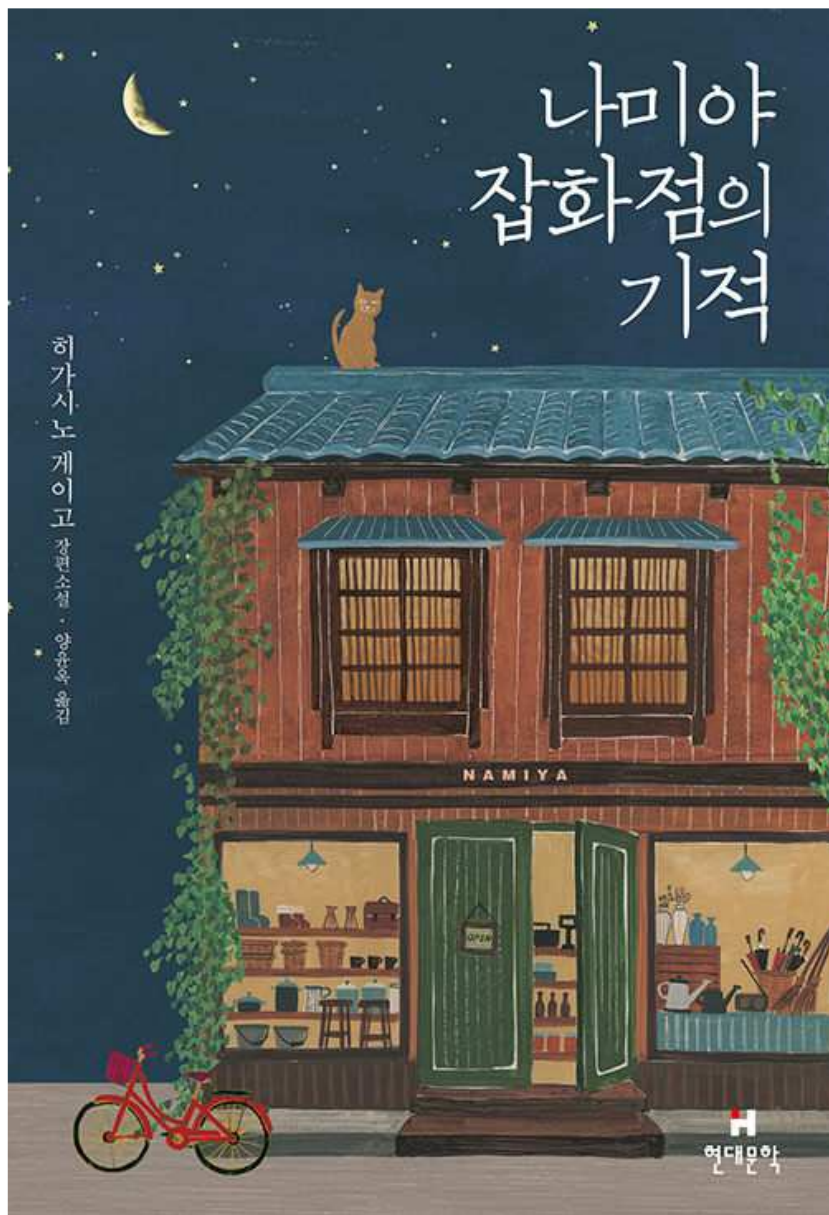
윌리 원카의 초콜릿 포장지에서 황금빛 초대장을 우연히 받게 된 찰리가 겪는 모험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초대장은 윌리 원카의 초콜릿 포장지 속에 들어 있다.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어린이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비밀에 싸인, 전설적인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콜릿과 사탕을 선물로 받는다.

윌리 원카의 공장에서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껌, 단물이 빠지지 않는 껌, 제비꽃 향이 나는 마시멜로, 10초마다 색깔이 바뀌는 맛있는 캐러멜, 입에 넣자마자 달콤하게 녹아버리는 작은 깃털처럼 생긴 사탕, 그리고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절대 녹지 않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만든다.

엄청나게 마구 먹어대는 아우구스투스 굴롭, 세상에서 제일 버릇없는 버루카 솔트, 늘 짹 짹 씹어대는 바이올렛 뷰리가드, 온종일 TV 앞에만 붙어 사는 마이크 티비, 말라깽이 찰리가 이 엄청난 행운을 차지한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모험이 기다릴지?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 ◎ 서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 발행자: 현대문학
- ◎ 발행년: 2017
- ◎ 청구기호: 833.6-히11ㄴ

책 소개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장 경이로운 대표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국내 출간 10주년을 맞아 무선 보급판으로 발간된다.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그린 초판 표지의 감동을 그대로 담아낸 무선판은 다소 무게감 있었던 양장판과 다르게 누구나 가볍게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0주년을 기념해 표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모바일 메신저 테마를 배포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예정이다.

시한부 애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곁을 떠나 있는 게 과연 맞는가, 꿈을 위해 노력했지만 몇 년째 성과는 없고 부모는 노쇠해지는 상황에서 이젠 꿈을 접어야 하는가? ‘나미야 잡화점 님’ 앞으로 도착한 고민 사연들은 이렇듯 하나같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졸지에 ‘나미야 잡화점 님’이 되어 투덜투덜 답장을 쓰던 삼인조는 어느새 그 안타까운 사연들에 빠져들고, 그들과 함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나미야 잡화점에 이런 편지들이 오게 된 이유는 40여 년 전, 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유지’ 할아버지가 ‘나야미悩み’(고민)를 상담해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면서 이곳이 ‘고민 상담실’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아직 잡화점이 문을 열었던 1970년대 문구류를 사러 드나들던 아이들과 복작한 옛 동네의 풍경, 비틀스에 열광하던 청춘들, 이어 사상 유례없는 호경기로 화려하게 변해가는 상점가와 거품경제의 몰락, 그리고 2012년 취업난 등에 절망한 청년 세대까지, 수십 년 세월의 파노라마를 하룻밤 속에 담고 있는 소설은 지나간 시절의 향수와 현시대의 아픔을 오롯이 품으며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세계문학전집 75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F. 스콧 피츠제럴드 김옥동 옮김

민음사

책 정보

- ◎ 서명: 위대한 개츠비
- ◎ F.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 김옥동 옮김
- ◎ 발행자: 민음사
- ◎ 발행년: 2004
- ◎ 청구기호: 808-민68ㅅ-75

책 소개

20세기 가장 뛰어난 미국소설로 꼽히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장편소설. 우리 나라에 출간된 판본만 해도 수십여 종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텍스트를 원전으로 삼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에 민음사에서 펴낸 책은 초판본의 오류를 바로잡은 1991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결정판'을 원본 텍스트로 선택했다.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과 역자 주를 붙였으며, 김옥동 교수의 번역 역시 깔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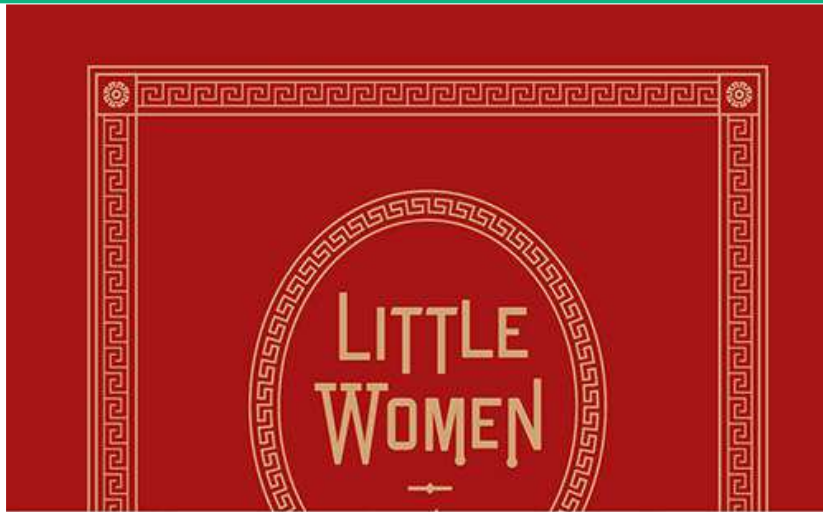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황폐한 이면을 하드보일드 스타일로 묘사한 걸작이다. 어려서부터 성공의 야망을 품어온 미국 중서부 빈농 출신 개츠비는 1차대전 중 육군장교가 되어 상류층 아가씨 데이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개츠비가 유럽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데이지는 돈많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린다. 전선에서 돌아온 개츠비는 술 밀수로 부를 축적한 뒤, 데이지를 쫓아 뉴욕 롱아일랜드의 호화저택을 마련한다.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개츠비는 그녀의 사랑을 다시 얻는 데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데이지가 지닌 부르주아 특유의 이기주의에 희생되어 버리고 만다.

젊은날의 야망과 절망, 욕망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청춘소설이다. 이른바 '재즈 시대'라 불리던 1920년대 미국의 풍속소설로 읽을 수도 있다. 자연 풍광에 대한 시적 묘사, 놀라우리만치 예리한 심리묘사 등, 피츠제럴드 특유의 빼어난 문체와 시대의 아우라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한편의 소설이다.

작은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컷 지음 | 강미경 옮김

2월 12일
대개봉



책 정보

- ◎ 서명: 작은 아씨들
- ◎ 루이자 메이 올컷 지음 ; 강미경 옮김
- ◎ 발행자: RHK
- ◎ 발행년: 2020
- ◎ 청구기호: 843.4-올825ㅈ

책 소개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작은 아씨들> 속 ‘조의 책’을 그대로 재현한 오리지널 커버 특별판. 작가가 한 권으로 생각하여 작업했던 1부와 2부를 합친 완역판에 2020년 2월 12일 개봉 예정인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작은 아씨들> 스틸컷이 더해진 책으로, 소설을 그대로 구현해 낸 영화 속 장면을 찾아보는 재미가 더해졌다.

1868년 초판본과 같은 표지라는 것과 동시에 영화 <작은 아씨들>의 후반부, ‘조’의 꿈이 이뤄지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특별한 표지는 150년의 시간을 건너 온 것처럼, 영화와 소설과 현실을 이어준다. 완성된 책 표지에 금박으로 반짝이는 ‘Little Woman’이라는 글씨를 보며 네 자매의 이야기를, 작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각자 다른 꿈을 꾸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면서도 따스한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네 자매의 이야기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제약이 심하던 그 시절부터 도전을 꿈꾸게 했으며, 지금도 여성주의 문학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문학적 가치로 남아 있는 책이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누구나 일생에서 단 한 번, 무지개 빛깔을
내는 사람을 만난다.”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의 롭 라이너 감독이 만든
첫사랑 영화의 정석 〈플립〉의 원작!



책 정보

- ◎ 서명: 플립
- ◎ 웬들린 밴 드라닌 지음 ; 김윤희 옮김
- ◎ 발행자: f(에프)
- ◎ 발행년: 2017
- ◎ 청구기호: 843.6-벤228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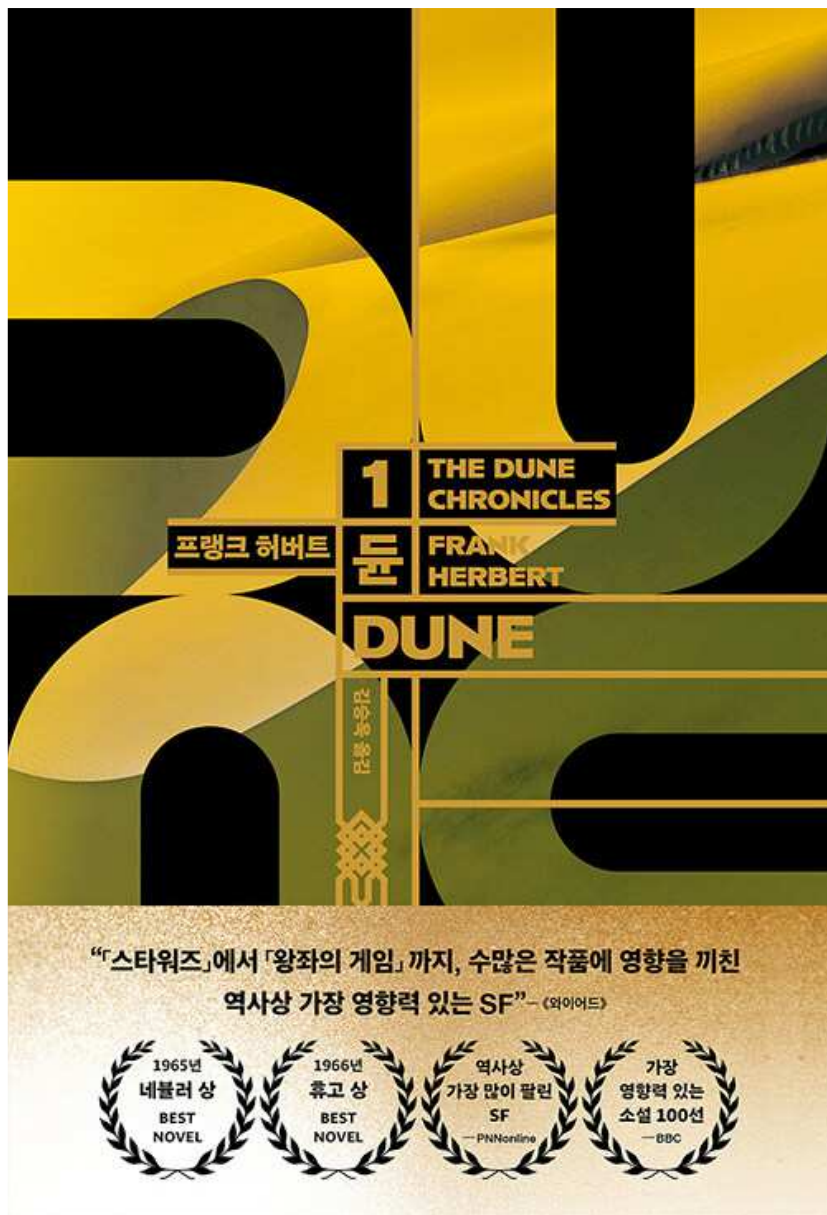
책 소개

영화 [플립] 원작 소설. 두 주인공이 7살부터 13살까지 성장기를 보내며 겪는 이야기들을 다룬 작품이다. 괴짜 소녀 줄리와 외모만 번듯한 소심 소년 브라이스, 이 두 주인공이 마치 일기를 쓰듯 각자의 속마음을 번갈아 서술하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나무 타기를 즐기는 만능 우등생 소녀 줄리는 앞집에 이사 온 푸른 눈동자의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출중한 외모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소심남 브라이스는 줄리를 일생일대의 위협으로 여겨 밀어내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브라이스는 자그마치 6년 동안 줄리를 피하고 도망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가 선물한 달걀을 내다 버리던 브라이스의 만행이 발각되면서 둘의 관계는 역전된다. 줄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푸른 눈동자의 주인공에게서 소심한 겁쟁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브라이스는 세상에서 제일 괴짜인 소녀에게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 죽자고 달려드는 줄리와 살자고 밀어내는 브라이스는 과연 첫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 ◎ 서명: 둔. 1
- ◎ 프랭크 허버트 지음 ; 옮긴이: 김승욱
- ◎ 발행자: 황금가지
- ◎ 발행년: 2021
- ◎ 청구기호: 843.5-프232ㄷ-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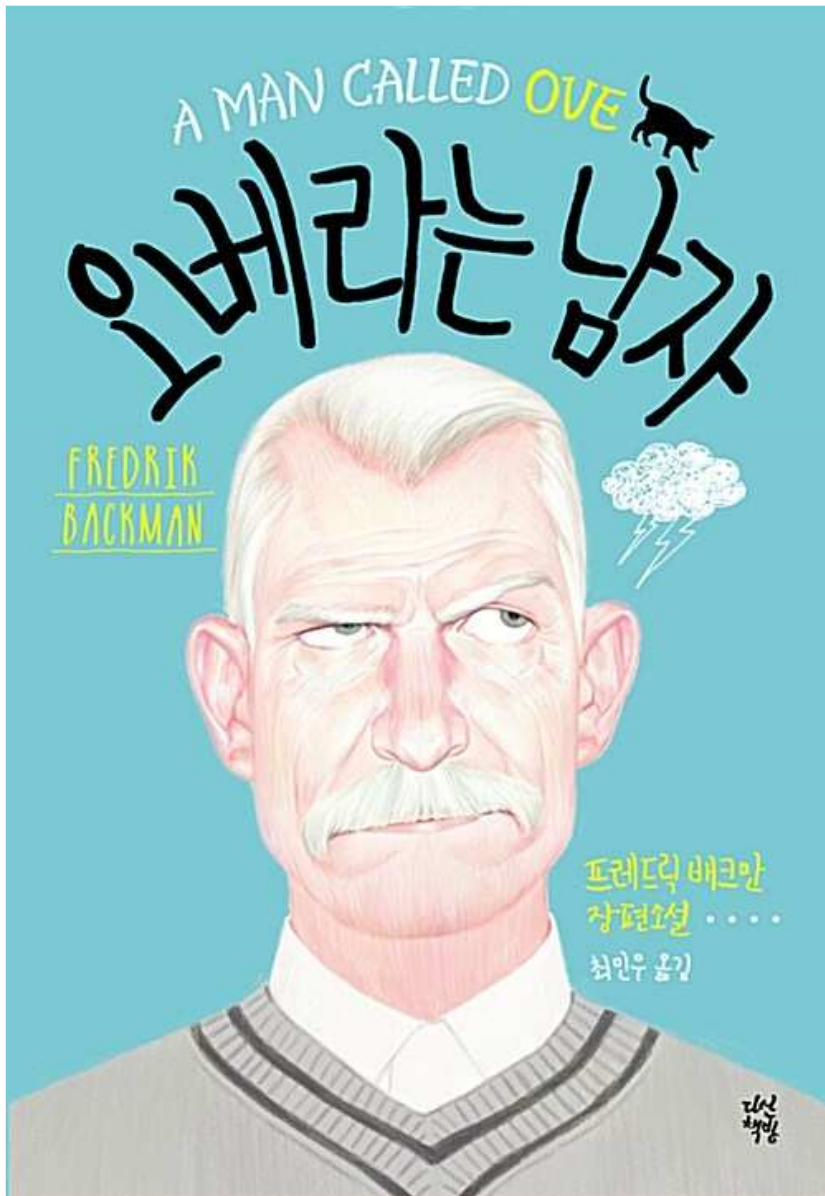
책 소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SF이자 독자들이 뽑은 역대 최고의 SF인 프랭크 허버트의 대작 『둔』이 신장판 전집으로 황금가지에서 출간되었다. 2001년 첫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20년 만에 재출간된 신장판은, 기존의 18권 반양장본을 원서와 동일한 6권으로 묶은 양장본으로서, 김승욱 역자가 6개월여의 원본 대조 작업을 통해 번역을 새롭게 손봤다.

『둔』은 지금까지 2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SF로 알려져 있으며,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감독인 드니 빌뇌브에 의해 대작 할리우드 영화로 올 10월 공개될 예정으로, 예고편 공개만으로 원작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대작이다.

우주 시대 인류 역사가 담긴 『둔』 전집은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를 배경으로, 철학, 인종, 종교, 정치, 문화, 역사 등을 모두 담아낸 대하 SF이다.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폴 아트레이데스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황제와 하코넨 가문의 정략적인 함정에 빠져 몰락했다가 폴에 의해 복권되는 과정을 한국 출판본 기준으로 근 1000쪽에 이르는 장대한 분량으로 집필하였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 ◎ 서명: 오베라는 남자
- ◎ 프레드릭 배크만 지음 ; 최민우 옮김
- ◎ 발행자: 다산책방
- ◎ 발행년: 2015
- ◎ 청구기호: 859.7-배828ㅇ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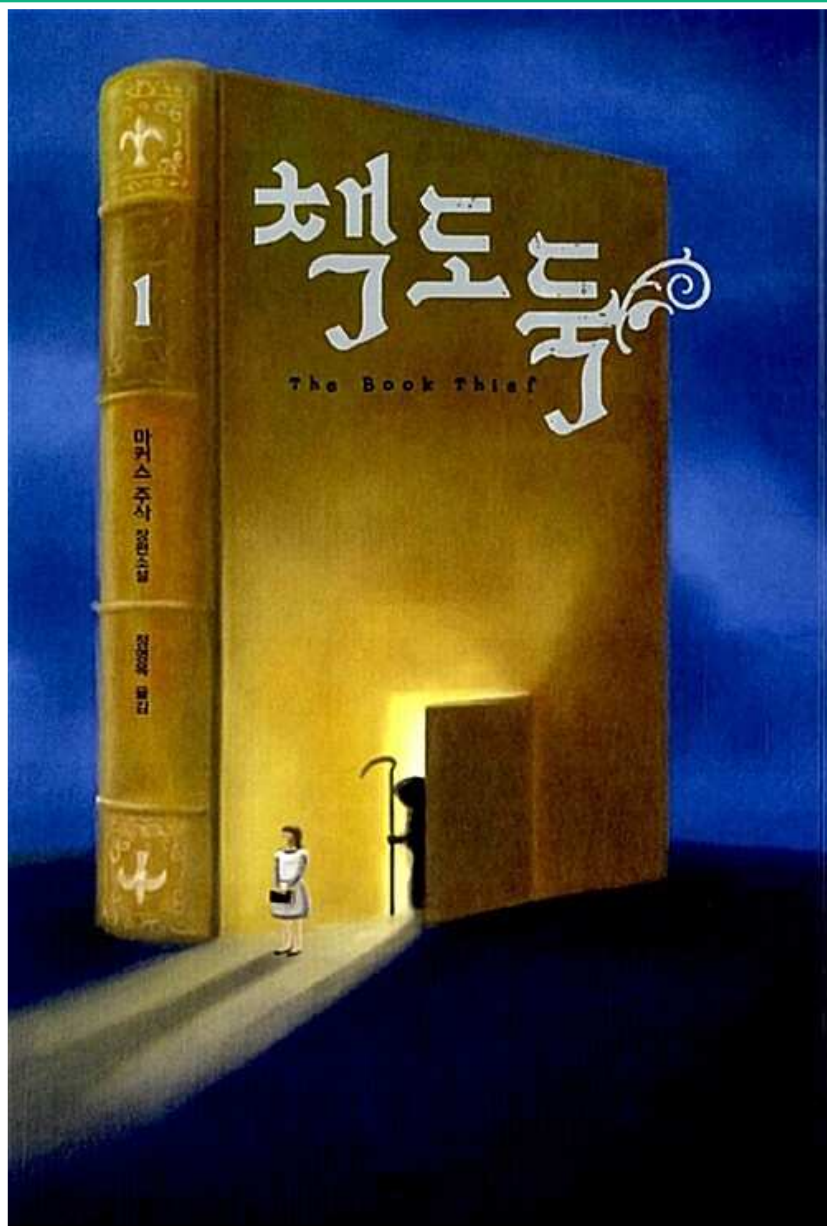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의 데뷔 소설. 인구 9백만의 스웨덴에서 7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신인 작가를 스타로 만들어준 소설이다. 또한 독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유럽 전역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올해의 책' TOP3을 차지한 작품이다.

무엇이든 발길질을 하며 상태를 확인하는 남자. BMW 운전자와는 말도 섞지 않는 남자. 키보드 없는 아이패드엔 분노하는 남자. 가장 싫어하는 광고 문구는 "건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까칠한 이웃 남자, 오베.

오베는 어느 화요일 오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는 결심한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고리를 천장에 박겠노라고. 그 고리에 밧줄을 걸고 자살할 것이다. 늘 그렇듯 오베는 이 일을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베가 막 고리를 박으려는 순간, 엄청나게 귀찮고 성가신 소리가 들려온다.

이웃집에 이사 온 '이상한' 가족들 때문에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는 오베. 과연 그는 희한한 이웃들과 성가신 고양이의 기상천외한 방해공작, 관료제의 로봇 하얀 셔츠들의 도발을 물리치고 무사히 아내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일상에 생기기 시작한 균열을 받아들이고, 하얀 셔츠들로부터 루네를 지켜낼 수 있을까?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 ◎ 서명: 책도둑. 1
- ◎ 마커스 주삭 지음 ; 정영목 옮김
- ◎ 발행자: 문학동네
- ◎ 발행년: 2008
- ◎ 청구기호: 843-주51ㄸ-1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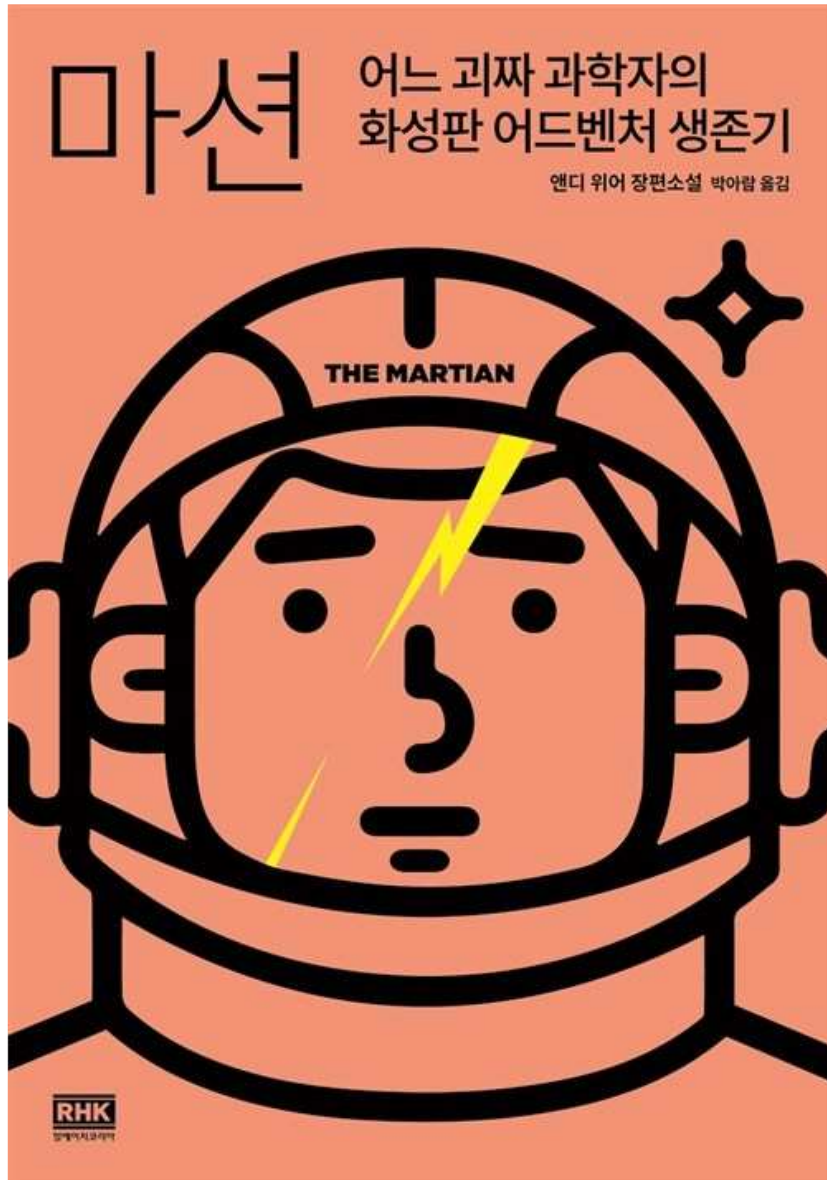
전쟁의 비극과 공포 속에서도 책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버텨나갈 수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이 소설의 배경이다. 화자는 다름 아닌 '죽음의 신'. 어느 날 한 소년의 영혼을 거두러 가게 된 '나'는, 그곳에서 책을 훔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독일의 작은 도시 몰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도시의 가난한 거리 힘멜에 아홉 살 소녀 리젤이 양부모인 후버만 부부와 살고 있다. 리젤에게 삶은 고통 그 자체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후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몰헴의 후버만 부부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로 한다. 그러나 몰헴으로 오던 도중 남동생은 기차 안에서 목숨을 잃고, 눈이 펄펄 쏟아지던 날 차가운 땅속에 묻히고 만다.

리젤은 때때로 동생의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지만, 한스에게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간다. 호시탐탐 리젤과의 첫키스를 노리는 루디와는 어느새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하지만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 작은 도시에 점점 더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리젤은 책을 버팀목 삼아 이 아픈 시절을 견뎌낸다. 리젤은 이제 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글을 써나가기 시작한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숨 가쁘게 뒤바뀌는 운명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냈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 바치는 헌사와도 같은 소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마커스 주삭은 <책도둑>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10월 책모아보다, 「영화로 만들어진 그 책」



책 정보

- ◎ 서명: 마션
- ◎ 앤디 위어 지음 ; 옮긴이: 박아람
- ◎ 발행자: RHK
- ◎ 발행년: 2015
- ◎ 청구기호: 843.6-위63□

책 소개

화성에서 조난당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작가 앤디 위어가 2009년 취미 삼아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시작했던 소설로, 독자들의 요청으로 2011년 아마존 킨들 버전으로 자비 출판되었고, 이후 한 문학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 미국의 중견 출판사 크라운사에서 정식 출판되었다.

"지난 수십 년을 통틀어 이토록 잘 읽히는 소설은 처음이다", "21세기 과학적 지식이 빛을 발하는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는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던 <마션>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12주 연속 머물렀고, 1년도 채 안 된 오늘날 뉴욕타임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37주 연속 재진입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인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가 있다. 화성 탐사의 세 번째 계획인 아레스 3 탐사에 참여한 마크는 동료들과 함께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 막사를 짓고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선다. 하지만 단 몇새 만에 예기치 못한 모래 폭풍이 휘몰아 치면서 임무는 중단되고 궤도로 복귀하라는 항공우주국의 지시가 떨어진다.

폭풍 속도가 화성 상층권의 한계를 벗어나리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주비행사들은 서둘러 복귀에 나선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과 맞닥뜨린 마크 와트니는 죽음의 위기를 겪고 홀로 고립된다. 마크의 생체 신호가 멈춘 것을 확인한 동료들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화성 표면을 떠난 것이다. 이제 마크는 어딘가로 떠날 수도, 지구에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는 과학자 고유의 감각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키우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지구와의 교신을 시도하는데...